

시론



천 세 진
문화비평가·시인

30대 이하 세대 시인들의 작품을 읽을 때마다 1960년대 이전에 태어난 세대와는 사물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살아가는 시대가 다르고 시대별로 공간 속 사물의 구성이 다르니 다르게 보는 것은 당연하나,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니다.

손 홀은 『기호학 입문』에서 “사물, 이미지, 텍스트 등은 시간과 공간 구성에 따른 구조를 갖는다”고 썼다. 사물, 이미지, 텍스트는 생각을 만드는 핵심 요소다. 시간과 공간의 다름은 서로 다른 사물의 존재와 배치에 따르고, 존재와 배치의 구조를 읽는 가운데 다른 생각이 탄생한다. 세대별 차이는 다른 구조가 생각을 낳았다는 전제를 두고 이해해야 한다.

문학 작품은 결국 사물이 존재와 사물의 작동을 통해 구조를 갖는다. 20세기 이후의 사물은 이전 세기들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정도의 질적 차이와 작동구조를 보였다. 오스발트 슈펜글러(1880-1936)가 이전 시대와는 다른 양상의 전쟁(제1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집필한 『서구의 몰락』(1918-1922) 서론에서 “현대는 문명의 시대이지 문화의 시대가 아니다.”라고 밝힌 것은, 새롭게 등장한

관계를 보는 세기의 눈

사물이 인류의 삶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만들었다는 이해에도 적용된다.

사물과 인간의 관계는 20세기 이전, 20세기, 21세기로 나눠 이해할 수 있다. 유럽의 근대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 20세기 이전의 모든 문화권에서 사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영혼을 매개하는 존재로 인간과 관계를 맺는 것이 주류였다. 모든 사물에 신성과 영혼이 깃들었다고 여겨졌던, 막스 베버(1864-1920)가 ‘마술화’의 영향 속에 있다고 본 시기에 인간은 사물 속에서 자신들이 믿는 신의 흔적을 보고 자연과 유기적인 관계로 엮여 있었다.

나라와 문화권별로 진입 시기에 차이는 있지만, 20세기는 산업혁명의 영향과 ‘탈마술화Entzauberung’가 낳은 영향이 주류가 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과학 기술 만능주의의 시대였던 이 시기의 사물은 ‘효율’을 최고의 가치로 평가받으며 영혼을 잃고 도구가 되었다. 인간과 사물이 영혼으로 맺는 관계는 비합리적인 미신과 반지성으로 몰렸다. 기계와 공장은 마술 대신 효율을 숭배했고, 인간 스스로 생산 체계의 일부가 되고 말았다.

20세기는 다른 생명체들과 사물을 배제하고 인간이 구축한 관계들에 대해서만 집착한 시대였다. 68, 4·19, 5·16 같은 숫자들이 대변하는 시대정신은 인간들 사이의 투쟁적 관계를 상징했다. 독재에 대한 항거, 경제적 생존 경쟁에 내몰렸던 20세기를 주류로 살았던 세대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다른 생명체와 사물은 교감을 위한 대상이 아니고 수치화하고 얻어야 할 재산 목록으로 추락했다.

모든 시대는 반동을 낳는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세대에게 다른 생명체와 사물을 도구화한 이전 세대의 사유체계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에 대한 반동으로 새로운 세대는 폐기되었던 관계를 복원하려고 한다. 덕분에 20세기에 철저히 도구화되었던 생명체와 사물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고, 마술화와 예술화의 오브제가 되고 있다.

문제는 있다. 영혼을 교감할 자연 사물은 효율을 추종한 20세기 산업 구조하에서 대부분 괴멸됐고, 젊은 세대의 삶 주변에는 효율적 도구로 살아남은 문명적 사물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그들은 그런 구조 속에서 자랐고, 20세기 세대들이 남겨놓은 생명체와 사물들과 영혼을 나눌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하잘것 없어 보이는 작은 생명체들과 사물들 앞에서 기뻐하고 사진을 찍고 어르고 있다. 기성세대가 보기에 못마땅한 그 모습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다. 영혼을 만나는 모습이다.

도구의 세기를 지나 교감의 세기로 돌아왔으나 20세기 이전과 21세기는 사물과 이미지가 다르다. 한동안은 20세기가 구축해 놓은 구조물들 속에서 영혼을 나눌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었지만 21세기는 4분의 1일 지났을 뿐이다. 21세기 세대는 구시대가 축적해 놓은 것 안에서만 관계를 복원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생명체와 사물, 구조까지를 영혼의 관계에 호응하는 것으로 복원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믿는다. 우리가 남긴 것을 다르게 보는 눈을 키우고 있는 젊은 세대의 고투가 축은하고 감사하고 미안할 뿐이다.

자치칼럼



서 순 복
품자주자시민들 대표회장
조선대 법학과 명예교수

“사람이 희망이다. 교육이 희망이다. 지역이 희망이다.” 부산 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이셨던 황한식 교수님의 추도식에서 부인인 김수자 교육자치 대표가 남편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신 말이다. 올해 10월, 광주에서 영호남 자치·분권·균형발전 전략 워크숍을 작년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했다. 교수님은 암 수술 이후 항암 치료로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여하시겠다고 통보했다. 일주일 후 다시 연락이 왔다. 참석하기 위해 걷기 연습과 운동을 시도해보았지만 역시 힘드셨던지 못 오신다고. ‘지역의 힘, 주민의 힘, 연대의 힘’을 강조하며 부탁 말씀을 하셨다. 가슴이悶궤했다. 40여 년 동안 자치 분권개혁 운동에 쏟은 그분의 정성과 열정을 알기에 더욱 그랬다. 부울경과 광주전남이 연대를 심화해서 우리나라의 자치분권 개혁을 앞당겨야 한다고 하셨다. 추도사를 하던 부산대 총장은 故 황한식 교수님을 가리켜 자치분권운동에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그만큼 자치분권 개혁 시민운동에 헌신 몰입하셨다는 말이다. 마지막 병상에 계시면서도 부산분권혁신본부 임원분들에게 미래 운동 방향에 대해서 당부하셨다고 한다. 3년 전 광주의 품질자치 주민자치시민들(약칭 품자주자시민들)과 부산 분권혁신운동본부 간에 MOU를 체결했

영호남 자치연대의 주춧돌, 故황한식 교수님

다. 교수님의 분권 특강을 처음 들었을 때 놀란 점이 있다. 강의의 시작과 마지막 부분에 시를 낭송했다. 그 분은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농촌사회 간사활동을 하면서 농민과 지식인의 만남을 통해 농민운동 노동운동을 하다 투옥됐다. 이른바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이다. 유신정권에 의한 민주세력 탄압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그만큼 치열한 사회운동가였음에도, 시를 읽고 좋아하는 낭만파였다. 작년에 부산분권혁신본부 몇분에서 광주를 방문했는데, 수도권일직지중체제의 문제를 부산과 광주의 시민들이 노래 가사로 만들어 품바 타령처럼 전국 순회공연을 제안하기도 했다. 일제와 해방이후 시대별로 특징을 요약하면서 대표적인 대중가요 한 곡씩 함께 열창했던 시간들이 생각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한민국은 자치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해 분권 개헌을 시도했으나 좌절됐다. 연방제에 가까운 분권을 한다 고 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수도권 일국 집중체제와 중앙집중적인 행정 시스템으로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는데 한계가 있다. 역대 정부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등 명칭을 달리해 자치분권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지만, 실체는 진도를 많이 나가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치분권 운동을 해왔던 어느 분은 이제 지쳤다고 고백했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 휴면 상태에 들어갔던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도 이미 30년이 경과했지만, 지방자치가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다. 고위 사무에 비해 국가위임 사무의 비중은 여전히 훨씬 높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에 있어서도 지방세는 3할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2할 자치라고 하지

않은가?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지났음에도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악화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지도 10여 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시범 사업 중에 있다. 읍면동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법적 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는 그 법적 근거를 아직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회와 마을 공동체의 통합적 발전은 아직 멀었다. 이전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오히려 후퇴했고, 주민자치 박람회도 폐지되지 않았던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국무총리도 최근 말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국토의 어디에서 살든지 삶의 질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도록 하는 정책목표를 지향해야 한다. 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발전계획이 결정되는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자치분권개혁은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지방의 힘, 시민의 힘, 지역연대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주민이 먼저 자치의 체제력으로 서로, 주민주체세력들간의 네트워크화가 이뤄져야 한다. 영호남이 연대해야 한다. 진주성에 가면 ‘무진주 무호남’ 진주가 없으면 호남이 없다고 비석에 적혀 있다. 화순 출신 최경희 장군은 임진왜란 의병 출병 시 왜 경상도까지 가야 하나냐는 부하의 푸념에 “호남도 우리 땅이요, 경상도도 우리 땅이다”고 했다. 독재정권에 의해 왜곡된 지역감정에 끌려다니 수는 없다. 나라를 살리는 데 어찌 영호남이 따로 있을 수 있는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운동에 헌신하셨던 故 황한식이 당부했던 지역연대의 힘을 다시 생각해 본다. 그 분이 그림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독자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5년 3월 발생한 청도 근 산불로 인해 33명이 사망하고, 45명이 부상당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7천여개의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주택과 사찰 등 문화재와 중요한 시설들이 포함돼 있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많은 이들에게 산불의 위험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만

대형 산불이라는 비극 되풀이 돼선 안돼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 점검과 철저한 예방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산림보호구역 내 소각 금지 및 화재 발생 시 벌금 부과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산불은 단순한 자연 재해가 아니라, 인간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위기이다. 더욱이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는 개인, 사회, 나아가 국가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다면 되

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더 많은 예방책을 마련해야 하며, 개인은 산림 지역 방문 시 불씨를 남기지 않는 등의 예방 실천이 필요하다. 산불 예방은 제도적 변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개인의 실천이 적절히 균형을 이뤄져야 막을 수 있기에, 국가구성원 모두의 경각심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김상진·여수소방서 화력119구조대 소방사〉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위기의 광양 철강업 다시 국가 기간산업 선봉으로

산업통상부가 광양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했다.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의 경쟁력 회복과 미래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흐름인 저탄소·첨단산업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한숨 돌리게 됐다.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은 2년이며, 광양시는 381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추가 지원받는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 대출이자 보전 등도 맞춤형으로 제공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앞서 신청 당시 총 3천511억원 규모의 5개 분야 19개 지원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2026년 예산안에 285억원은 반영됐으며, 나머지도 포함되도록 중앙부처, 국회와의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광양은 생산의 88.5%, 수출의 97.6%, 고용의 97%를 철강산업에 의존하고 있지만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 중국산 저가제 수입, 내수 부진 등으로 수요가 줄면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역시 주요 제품 매출이 모두 감소했으며 특히 중소 협력업체들의 매출과 영업이익

이 급격 하락하고, 고용 감소와 청년층 인구 유출로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하는 상황이다. 주요 상권 공실률도 17.2%로, 전국 평균 10.2%를 상회하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의 조속한 제정도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권항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기반계획 수립, 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기술 조세 감면, 특구 조성, 인증제 도입, 실증 기반의 개방·활용 및 시험 지원 등이 포함됐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전남에서 지난 5월 여수시에 이어 광양시가 2번째다. 대한민국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중심지로서 다시 역할할 수 있도록 엄중 인식해야 한다. 전남도는 어려움을 이겨내 중흥의 선봉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동부권 산업 전환의 위기 대응 기반이 한층 견고해졌다. 환영하는 바다.

또 지연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시민 불편 헤아려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시청-금호지구-백운광장-광주역) 구간 개통 시점이 2027년 말로 조정됐다. 2023년 말에서 2024년 말, 그리고 2026년 말에서 또 다시 미뤄졌다. 광주시는 당초 예측 못한 난공사와 지장물 발견, 극한 호우에 따른 정거장 전체 침수 등 현장 여건을 종합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첫 삽을 뜬 게 2019년이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부득이했다고 하지만 시민 입장에서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강기정 시장이 직을 걸고 12월 22일까지 약속한 도로 개방은 예정대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꼭 지켜지길 바란다. 앞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이번엔 시기를 특정하면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지금껏 시민들은 극심한 교통 혼잡과 통행상의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이고, 금호지구 일원 등 인근 상인들은 심각한 매출 감소와 생계 위기에 처해 분통을 터트려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공기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손실 보전, 전용 소

비쿠폰 발행, 공공기관 우선구매 적용 등 긴급 지원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 시의원은 “‘암반 발견’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예측·검토하는 것이 바로 실시설계의 존재 이유다. 공사 지연은 명백한 예측 실패이자 행정 실패”라고 직격했다.

이미 인내심은 바닥났다고 본다. 시의회의 강한 압박에도 애써 즉답을 피한 시가 공정 재조정을 거쳐 내놓은 2027년 말 시한이다. 책임의 무게가 절대 가볍지 않다. 다음달로 예고한 1단계 도로 완전 복구부터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그리고 공식 개통 일정까지 차질이 없도록 더 집중해야 한다.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고 있다. 혹한기로 접어들었다. 안전한 시공이야 무뎌할 필요 없다. 장기간의 공사로 각·간접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 대한 보상 절차도 마련하고 실행돼야 한다. 순환선인 도시철도 2호선이 열리면 도심을 직선으로 관통하는 1호선과 연결하고 준공영제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맞물려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에 다가서게 된다. 1단계 구간을 적기 완공하고, 2단계(광주역-첨단-수완지구-시청) 시공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이점에서는 詩

그루터기를 보며

박정호



새들에게 가난하다 말하지 않는 것처럼
바위에게 답답하다 말하지 않는 것처럼
불박인 나무를 보고 오라 하지 않는 것처럼
먼 길 가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이 있다.
서로 서로 기대다가도 외마로이 나앉아
몸속에 나이트메 같은 길을 내어가고 있음을
(시조시집 ‘마음 한 방’, 이미지북, 2025)

러나간 텅빈 그루터기를
보고 왜 여간 헛헛하기
짝이 없느냐고 시시콜콜
따질 일이 못 되는 것임
을. 마친가지로 새들에게
가난하다 말하는 것은
실례다. 바위에게 참 답
답도 하게 생겼네 말하는
것도 경우에 어긋난다. 묵묵히 한 자리에 불박한
채 사유에 잠긴 나무에게 오라 마라 간섭하는 것도
옳지 않다. 형형색색 각 대상을 이 애초 분리된 존재
이내 관계의 연으로 맺어진 이상 서로 기능성의
실제로서 상호작용을 주고 받으면서 있다. 서로의
존재론적 삶을 느끼고 알아가는 도정이 놀라운 깨
달음의 시간인 것을 다들 체험으로 터득하고 있다.
비울 것 다 비우고, 자기 뚫으로 딱히 주위살길 만
한 무엇도 남아있지 않은 헛헛함의 그루터기, 하
지만 길이 돌돌 말린 나이트메를 보라. 그 또한 존재
의 근거인 것임. <윤상현·시인>

【시의 눈】

삼라만상. 그들은 제각기 존재 이유가 있다. 생명의 근거를 지닌다. 다들 고유한 형상과 독자적 개성으로 주어진 삶의 길을 자기답게 걷고 있다. 하늘을 보며 왜 푸르냐고, 오리를 향해 왜 뒹뒹뒹뒹 걷느냐고, 늘보원숭이를 보고 왜 행동이 굼뜨냐고 트집 잡을 일이 아닌 것이다. 밀림에 들어가 도대체 무슨 수목이 뻗뻗이 들어와 있냐고, 밑둥이 잘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烈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1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1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20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사업부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1991)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